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9

1996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히브리서, 로마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996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표지설명 / 금년 9월 첫주로 교회설립 43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초창기 주일 학교 교사들.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교회 딸에 모여서 기념촬영을 했다. 가운데 김창인 원로목사의 모습이 보인다.

기 도 제 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2.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3.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4.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6.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7.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8.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6년 9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로마서 서론

본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주후 55-58년경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중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극심한 빈곤의 소식을 듣고,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연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 어느 한 곳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이 친히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문제로 인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의 도리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당면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일어난 몇 가지 문제들(14장)과 기독교 공동체에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이방인 성도간에 당면한 문제 및 세속 국가와 사회에 대한 행동양식의 문제를 다루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로마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주제 :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경험하는 구원 과정 전체에 대한 참된 교리
2. 구성 : 1) 계시된 하나님의 의(1:1-8:39) / ① 구원의 필요성(1:1-3:20)
② 칭의(3:21-5:21) ③ 성화(6:1-8:39)
2)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9:1-11:36) / ① 과거(선택; 9:1-9:29)
② 현재(거부; 9:30-10:21) ③ 미래(회복; 11:1-36)
3) 하나님 의의 실천(12:1-16:27) / ① 성도의 의무(12:1-13:14)
② 성도의 자유(14:1-16:27)

1

(주일) 한 영원한 제사

찬송 / 144장 본문 / 히 10:1-18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 (10:12)

하나님께서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을 성경에 발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 계시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태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희미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계시하신 구원 계획에 대한 설명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심은, 앞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계시였습니다. 짐승으로 제사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단 한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사 친히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부활하사 대언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화되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드디어는 영화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내주와 역사하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의 효력인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10:22)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막혀 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제 열려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하여,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잘 모이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딤후 3:12)는 말씀대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사는 우리들은 담대함과 인내를 견지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 때의 성도들만 어려웠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는 더욱 힘들지도 모릅니다. 핍박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시험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혹시라도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은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26-30절).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배이며, 기도이며, 찬송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의가 없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야 합니다. 정기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시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십시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즐기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11:6)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1절).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말 것입니다. 믿으면 무엇이냐 된다고 잘못 인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계시되지도 않은 것을 개인적 욕심으로 구하면서 믿는다고 자기 암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은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삶으로써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산 선진들은 모두가 세상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삶의 양식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교통,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바라보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창 12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소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을 유의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중히 여기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경계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볼 담임목사님을 속히 보내 주소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11:17)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아낌없이 내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진면목은 어떠합니까? 첫째, ‘떠나라’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였습니다. 떠남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애착을 ‘전적으로 포기함’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자신의 전 삶을 의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며, 자신의 장래를 예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듯 그가 순종한 근본 이유는 약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며, 오히려 그 약속은 그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자신의 본토를 떠났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환들을 모리아 산 기슭에 남겨두었을 때조차도 그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창 22:5)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준비하시리라”(창 22:8)고 하여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나타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쳤던 큰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약속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창 22:15-19).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범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11:25)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상태로부터 구해내고 그들의 생활을 위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세 가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믿음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멸종시킬 계획으로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출 1:15-22). 특별히 숨긴 아이들도 찾는 대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바,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바로의 권력 횡포를 두려워하지 않고(23절) 아이를 나일 강에 띄웠습니다. 부모의 참다운 믿음의 자세는 모세를 존재하도록 해 주었으며, 민족을 살리는 기적을 낳게 된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백성과 함께 하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사회적 명예를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궁의 영화로운 삶과 사막의 위험이 깃든 삶 중 양자 택일을 해야 했을 때, 그는 민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했습니다(24-26절). 그는 악으로 사치를 누리기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야 하는 고난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셋째,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26절의 '바라봄이라'는 말은 '그의 눈이 고정되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시적 이익보다는 영원에 고정시킨 모세는 하나님을 깨끗하게 바라보았으므로, 자신의 본분인 출애굽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은 현재의 고난 너머 저편에 있는 평안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모세처럼 어떠한 고난이라도 참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나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며, 모세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 (11:38)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땅에 더욱 집착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무장하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고 항상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이깁니다. 성도는 누구나 시험을 만납니다. 하나의 시험을 피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시험에 부딪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받되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시험 가운데서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핍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토록 두려워했던 유대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한 후 종교 탄압을 할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의 협박에 전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나아가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시련이 닥칠 때 쉽게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 』(12:2)

성도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을 통하여 더러운 곳이 변하여 새롭게 되며,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권세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에게 소망을 둬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소망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좌절과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온전한 믿음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며, 그 분만을 바라보며 그를 본받는 삶을 살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제부터는 온전한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12:28)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파괴하거나 진동하지 못할 완전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속한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동치 못할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나서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시내 산의 하나님의 현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압도되어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28절)은 하나님의 위대성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기쁨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감사 속에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을 지닌 자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대하며, 그 앞에 겸손히 꿇어 경배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잠시 후에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게 하소서. ② 교회일꾼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 』 (13:1-2)

성도가 실천해야 할 최고의 덕목은 형제 사랑입니다. 성도의 마음 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고 있어야 하며, 사랑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표현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감정이 있든지, 좋지 못한 감정이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똑같이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잘 대해 주는 자만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그 같은 사랑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잘 대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중에 뜻하지 않게 천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웃 사랑은 곧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마 28:44-45)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구의 모습으로, 가난한 거지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도울 수 있는 기회에 힘써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내 구역내에 도움이 필요한 자는 외면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선한 사업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게 하소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13:16)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본문의 저자는 이런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두 가지 귀중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첫째는 입술의 열매인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항상 드려야 합니다. 둘째는 생활의 열매인 선을 행하고 자기의 귀한 은사와 재능으로 남을 섬기고 나눠 주는 생활예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선을 행함과 구제의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16절). 성도는 항상 찬미의 제사와 생활의 예배를 항상 추구하면서 균형잡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생활예배가 없는 찬미의 제사는 알맹이가 없는 죽은 예배와 같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찬미의 제사가 없는 생활예배는 능력이 없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저자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는 성도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 기도를 합시다.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면 축복기도를 한 사람이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며, 다른 사람에게 항상 축복해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이웃에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영적 찬양을 부르게 하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1:17)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려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물로 매우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도가 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비이성적인 것이요, 비상식적인 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바울은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선포한 말씀입니다. 복음, 곧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둘째,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였고, 이에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게 된 복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우들을 향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어디서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들이 됩시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복음으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1:19)

바울은 이신득의(以信得義)를 설명하던 앞 단락과는 달리 본문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죄의 상태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창조 때의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죄에 빠져 있음을 강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현실적인 비극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에는 유대인의 죄를 논하기에 앞서 이방 세계에 범람하는 다양한 죄와 그로 인한 타락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통하여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셨음에도 그것을 외면하고 도리어 우상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종교적 사악함과 도덕적 방종으로 인한 성적인 타락과 완고함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 그대로 내어버려 두는 유기임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곧 계시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또한 본문에서 지적하는 죄를 모두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하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셋째, 이렇듯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2:6)

앞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셨으나, 이방인들이 그것을 외면한 채 사악함과 방종과 완고함에 빠져 있음을 언급한 바울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됨을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죄를 지었으며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범죄하여 심판에 이르렀으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하였은즉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행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하나도 거스림 없이 다 이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되는데 이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될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 그 율법으로 심판받듯이 복음을 먼저 접한 우리들도 그에 대한 책임이 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구원함을 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⁷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20)

본문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을 지닌 유대인은 그 스스로 율법을 모두 알고 있다는 교만된 생각으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유대인은 남에게는 율법의 준수를 강요하면서도 그들 자신은 율법의 근본 뜻을 저버리고 위선을 행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21-42절). 셋째, 유대인들은 할례의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할례의식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언약의 중표였으며 거기에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한 준행은 망각한 채 할례와 같은 형식적 율법 준수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의 영적 의미를 되살려 이를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참된 할례자임을 말하며, 이러한 내면의 유대인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즉 유대인의 할례가 그들이 율법의 근본 뜻을 저버림으로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 유대인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리어 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뜻을 살려 준행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신앙이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악이 사라지고 정의와 도덕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3:2)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도덕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의 외형적인 경건함을 추궁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은 다 예외없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악된 존재들이며,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총의 결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에 근거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 그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인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함께 생활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반드시 드러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특별히 나타내야 할 것이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큰 소리를 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말씀을 읽고 깨닫고 실천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그 말씀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맡은 바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국정에 바로 임하게 하소서.

7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 (3:31)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율법은 달려가는 마차의 양쪽 바퀴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어느 한 쪽에 치우치거나 혹은 다른 한 쪽을 무시한다면 결코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성경적인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적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라도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선행과 공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육간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만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이 '믿음'에 근거하여 구원받는다든 사실에만 집중하다가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 필요조차 무시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전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율법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 안에서 극복되어서 도리어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강건하게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믿음과 율법은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중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우리는 인간적인 자랑이나 교만함을 버리고 감사와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4:3)

신앙의 가장 중심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기록된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은혜의 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며 준행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불안함, 자신의 죄악됨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가항력적 주위 상황 등에 대해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 오르는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서라도 그 공포심을 이겨 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 쾌락을 좇아 가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만족이나 잠시 동안 갈등 해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곧 더욱 심각한 고민에 휩싸이고 더욱 무거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궁극적인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의인으로 거듭나야만 하는데, 이것은 결코 행위나(1-8절), 할례나(9-12절), 율법으로(13-16절) 말미암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게 하소서. ②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질병을 속히 낫게 하시어 선교 사역에 전념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4:18)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야 할 의의 모습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믿음의 귀중함을 철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창 12:3)에 대한 순수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또 그에 대한 실제적인 징표로 행해진 할례는 단순한 외적 표징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의 아무런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주장합니다(9-12절). 구약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였고, 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시점에서 아들을 낳아 약속의 후손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석과 같은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육신의 나이가 백세가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였습니다(20절). 물론 이 믿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임에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22절).

이제 우리 모두는 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②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사역하는 비스바덴교회와 프랑크푸르트장로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 화평을 누리자』(5:1)

사도 바울은 칭의의 필요성(1:18-3:20)과 칭의의 방법(3:21-4:25)에 대하여 설명하고 나서, 5장에 이르러 성도들이 칭의를 받은 결과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칭의를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장차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할 것을 알고,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좋은 일에만 기뻐하지 않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일 때에도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인내는 성도들에게 더욱 더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의인이 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은혜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입은 성도들의 특징은 화평과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입은 우리들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출장하는 복음주의신학교를 통해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소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5:19)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한 사람의 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이르게 된 것도 역시 한 사람 아담 때문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 인류가 죄를 짓고 전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바울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전 인류에게 왕노릇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욱 분명케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더욱 큰 은혜를 준비하여 대비책을 세워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의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와 생명에 이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기고 지는 것에 따라 그 나라 모든 국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해 주신 모든 의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②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가 계획하는 성지연구소 건립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6:1)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좋다고 하였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죄의 짐을 지고 죽을 때에 같이 죽은 사람들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한번 죽음으로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듯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들도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12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겨서,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드려서 죄를 짓는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되며,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의를 행하는 데 드려서 의의 도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우리의 지체를 의를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소서. ② 안석렬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구습을 버리고 영육간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6:16)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은혜 아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고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죄를 짓던 죄의 종의 자리에서 떠나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불법과 부정한 일들을 행하던 것에서 떠나서, 이제는 의를 행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며, 그 열매는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죄를 따르는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의 자리에서 떠나서 의를 이루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의의 종이 되게 하소서. ②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으로 중국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싹트고 자라나게 하소서.

『...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7:4)

하나님의 백성들과 율법의 관계는 혼인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애써 노력한 결과가 실패로 끝났으며, 사람들은 도리어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는 아픔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율법은 죄와 연합할 수 없었고,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드러내며 죄악의 실상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율법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절망이었으며, 사망의 짐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세워진 새로운 언약의 축복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율법에 매여서 살아오던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연합하였던 첫 언약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넉넉히 섬겨 나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자유와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진행하는 현지인 성경공부를 통해 수단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7:24)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 살아온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했는지를 체험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도저히 오르지 못할 산꼭대기를 향하여 올라서고 자 애쓰고 애쓰고 또 애쓰다가 결국은 깊은 고뇌와 좌절을 경험하는 인생의 쓰라린 아픔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같은 인생들의 부르짖음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탄식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몸부림을 쳐도 늘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은 분명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되어 거룩한 자리에 이르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다 실패하며 좌절하는 사람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에 관한 말씀이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능력에 관한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괴로운 심정에 젖어 참담한 마음으로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어둡고 암울한 경험으로 뒤덮여 있는 로마서 7장이 끝나면, 우리는 8장 서두에서부터 성령의 권능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혹 현재 우리의 모습이 7장과 같다면 우리는 반드시 8장을 기대해야 합니다. 놀랍게 쏟아지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②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인술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도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8:13)

앞 장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8장 서두에서부터 인간의 영혼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곧 성령이시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여전히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헤메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사람이며, 곧 육신을 좇아 사는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좇아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만이 곧 승리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동안의 실패는 육신을 좇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답게 성령을 좇아 살면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축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성령을 따라 살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섬기는 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8:39)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분명 고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받아야 할 영광의 소망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성도들을 분명히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로 정죄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송사하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니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주시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사역으로 물질의 풍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찬송 / 269장 본문 / 롬 9:1-18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 원하는 바로라』(9:3)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동족이면서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비극적인 사실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동족들에게 일평생 동안 핍박을 받는 몸이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닫지 못한 동족들의 불행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한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동족들이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강한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운명과 바꿀 수만 있다면 바뀌도 좋다는 말을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은 결코 동족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구원만을 다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족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운명을 그들의 운명과 바꿀 수만 있다면 바뀌더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소원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출 32:30-35)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해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다행이다” 하고 안도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며 구원을 위한 중보의 기도와 전도의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 기도 제목 / ① 믿지 않는 우리들의 친지, 이웃, 동족을 구원해 주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가 전개하는 선교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9:26)

9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일찌기 선민으로 살아왔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와 같은 혜택을 입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9장 후반부인 본문에서는 선택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시고 동시에 버리시는 일도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택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껏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며, 유대인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곧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받을 백성으로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믿음에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에는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받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선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인가 아닌가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민은 자신의 공로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10:12)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장에서부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의 요지는 한결같습니다. 육신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이요(9:32),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10:16-21)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10:17)는 말씀은 먼저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보다 더 일차적인 의도는 듣는 자들이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10:18)고 말함으로써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실천하지 않거나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수없이 들으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라도 순종하는 성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북한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1:5)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심히 안타까워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만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육정이나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 바울은 언젠가는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원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전파할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포기하지만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리라는 기대는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을 가져다 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입장을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배워야 할 사실은 바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사정만으로 쉽게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먼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게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한결같이 꾸준하게 증거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9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10월에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30 과

승천과 재림의 주님

읽을 말씀 / 사도행전 10장 34-4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1절,
마태복음 24장 3-14절
찬 송 / 162장, 168장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 땅을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재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의 도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각자 복음의 증인으로서 말은 바 사역에 충성했듯이 오늘 우리 역시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I. 예수님의 승천

1.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고난과 비하의 자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올리워졌습니다(엡 1:20-23, 빌 2:9).
2. 성자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보혜사로서 하나님으신 성령님이 믿는 자속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그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요 16:8-11).
3.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함께 하늘로 올리워져 하늘 보좌에 앉혀질 것을 시사합니다(엡 2:6, 골 3:1-3).
4.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더욱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히 4:14-16).
5.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전주곡입니다. 다시 말해 승천은 재림을 전제로 하는 필수적 사건으로서 올라가신 대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올 것을 시사해 주는 사건입니다(행 1:11).

1)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엡 1:21, 빌 2:9-11)?

승천하신 주님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부와 함께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계시며, 온 역사 세계의 주관자가 되심을 상징합니다.

2)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히 7:25, 10:21)?

오늘도 죄를 대신 고백하면서 제사장적인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II. 예수님의 재림

주님은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 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준비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1.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마 24:5-7)?
2. 주의 날에 대한 시기와 때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살전 5:1, 마 24:36)?
3.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온다고 하였습니까(마 24:14)?
4. 재림의 때는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살전 5:2, 3)?
5. 종말을 맞이하는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살전 5:6, 8)?
6.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마 24:13)?

지금 이 기회이고 은혜받을 때입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문이 열려있는 동안 자기 등에 기름이 담겨져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만약 기름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거짓된 믿음을 회개하시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천국잔치에 들어가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제 31 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읽을 말씀 / 마태복음 25장 14-30절
찬 송 / 162장, 168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결론으로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일이든 일이 끝나면 최종 평가가 있어야 하고 모든 재판에는 최종 결심 공판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최후에도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고(히 9:27),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후의 심판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판이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나 역사 기록까지도 잘못된 것은 최종적으로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죽어 보아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1. 성도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

1)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롬 8:1-4)?

우리는 확실히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이 때는 무엇을 받을 때입니까(사 40:10)?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에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도 신비한 상급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2. 구원받지 못한 자의 심판의 날

1) 백보좌 심판이 정하여졌습니다.

2) 그날에는 큰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이 모임은 구경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한 두려움과 떨리는 모임입니다.

3) 이 심판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계 6:15-17).

4) 심판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영혼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만약 사람이 그를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 결코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3.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행위로써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즉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요 1:12),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 주시는 것입니다(요 5:24).

심판은 악인에게는 두려움의 재판석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성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여 맞이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32 과

성령을 믿습니다 -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

읽을 말씀 / 요한복음 16장 1-15절

찬 송 / 177장, 181장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시 84:11)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온전한 선물을 내려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선물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가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시며, 높으신 영이시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운으로 우주가 창조되었고 그 기운으로 생명이 태어납니다. 성령은 이적을 행하시며 어떤 완악한 자의 마음이라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

십니다. 비겁한 자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대부분 신자들이 성부와 성자를 찬양하지만 성령께서도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성령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부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께서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성취된 구원을 선택된 백성에게 적용하십니다.

성령에 대해 크게 잘못된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하나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내 물건처럼 이용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이단들의 주장처럼). 성령은 내가 필요할 어느 때든지 이용할 능력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훼방죄, 성령을 속인 죄(행 5:3, 4)로 인격이신 성령을 결코 모독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요 3장).

1. 성령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성령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소개된 성령께서 가진 특성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영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둘째, 성령은 전재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

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셋째, 성령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동격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십니다.

넷째,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아십니다.

다섯째, 성령은 우리의 잘못을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섯째, 성령은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일곱째, 성령은 우리 속에 오시기로 약속된 분입니다.

2.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은 부르십니다. 성령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인을 부르십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귀에 들리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고집스럽고 교만하던 중심이 무너져 내리며 회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의 교제를 이루게 합니다.

둘째,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제한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시며 영원한 진리를 배우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치심으로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 죄로 부패하여진 인간이 결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심령에 성령님이 오셔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넷째, 성령은 인도하십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인생은 만경창파에 항해하면서 수많은 외적인 문제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은혜와 진리와 하늘나라로 인

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섯째, 성령은 기도를 도와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하는 일이므로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도와 주십니다.

여섯째,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의무요 본분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성도는 행실을 보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여 주십니다.

일곱째, 성령은 보증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믿는 자의 보증인이 되십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갈 5:16).

이는 율법적 양심과는 다릅니다. 율법적인 양심은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자신의 양심과 자아의 기준에 매이게 합니다. 이로써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이용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는 율법적 기준은 물론이거니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의 불변성과 진실하심을 내 속에 확증해 주심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며, 율법적 상황을 불문하고 어찌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 성령님을 거스리거나 근심케 해서는 안됩니다(막 3:29, 엡 4:30).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해서 성령님의 감화하심을 저버리면 점점 성령님의 감동은 소멸해가고 고집스럽고 미련하며 교활한 자아와 사단, 즉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고 삼가서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먼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또 우리에게서 떠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 질문을 받고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캄캄한 방에서 불을 켜보십시오. 순식간에 방안이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어둠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다시 불을 끄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빛과 어둠 간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마귀는 결코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마귀는 그 즉시 사라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마귀는 순식간에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언제나 빛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에 모셔들이고 의지해야 합니다.

제 33 과

추석(한가위 가정예배)

묵상기도 / 사회자

신앙고백 /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찬 송 / 305장, 492장, 495장 중에서

성경봉독 / 히브리서 11장 8-16절

⁽⁸⁾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⁹⁾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¹⁰⁾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¹¹⁾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앎이라 ⁽¹²⁾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¹³⁾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¹⁴⁾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¹⁵⁾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⁴⁶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설 교 / 가나안을 생각하며 삽시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일년 농사를 지은 것을 감사하며 우리 민족이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지키는 추석의 의미는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며 삽니다.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을 계산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가진 사람의 생활은 달라야 합니다. 마치 광야에 살면서 가나안을 생각하며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곳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더 나은 미래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살기에 무척이나 힘듭니다. 비난이 있고, 중상모략이 있고, 생존 경쟁이 있고, 사단의 갖가지 위협과 공격이 있습니다. 마치 파도치는 바다에서 조각배에 몸을 싣고 가면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의 심정과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거친 파도를 바라보느라고 더 멀리 보지 못합니다. 당장 눈 앞의 것들만 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가나안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의 것에 묶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세상을 떠

나는 날 더 좋은 세상을 바라보며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가나안을 보면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자가 사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는 소유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종들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히 주님과 관계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환경을 넘어서 살 수 있으며, 파도 뒤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

이며, 소망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추석이라 하여 농사지은 것들을 쌓아 놓으며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차례를 지내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조상들의 은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본향의 왕되신 그 분이 우리를 보시며 좋은 날씨, 곡식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조상을 통해서 이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 도 / 설교자

찬 송 / 305장, 492장, 495장 중에서

주 기도 / 다같이



MEMO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